

26개국 영상·서적 200만권... 이민자 역사·문화 거점

2부- 해외 다문화 현장을 가다

⑭ 다문화의 寶庫, LA 공공도서관

미국 LA=글·사진 이종행기자

美 도서관중 세번째 규모...영어 외 장서도 17만권

세계 각국 언어 학습·문화 공연 프로그램도 다양

미국 LA 공공도서관은 '다문화의 보고(寶庫)'로 불린다. 올해로 설립 138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지만, LA도서관이 주목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 다민족·다인종 사회의 특성을 고려, 세계 각국의 언어로 출판된 도서 등 방대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장자료는 서적, 영상, 잡지, 기타 출판물 등 200만권을 헤아린다.

미국의 도서관 가운데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이곳은 다문화·다민족 사회인 미국의 현재를 보여 주고 미래를 기약하는 대표적인 문화거점 시설이다.

LA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언어·문화적 특성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국가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 '샐러드 보울'(salad bowl) 주의의 진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곳이다. 광주일보 취재진은 지난날 23일 다민족·다인종 국가 이민자들의 역사와 문화 등이 한곳에 모인 'LA 공공도서관'을 방문 취재했다.

이날 오후 4시30분(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LA시 다운타운 내 LA 공공 도서관(Public Library) 1층 국제언어실(International language).

이곳에는 히스패닉·아프리카계 미국인·동양인·백인 등 피부색이 각각 각색인 이용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나무로 된 가로 4m, 세로 2.5m 크기의 6인용 테이블에는 힌두어·한국어·영어·스페인어가 적힌 책들이 놓여 있었다. 이용객들은 저마다 모국의 소설·역사책을 보며 독서 '삼매

경'에 빠져 있었다.

공공도서관 이용객들의 연령층도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문화와 언어는 달라도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한결 같아 보였다. 모국어로 된 역사책을 읽으면서 정체성 혼란에서 벗어나 자신의 미래를 찾은 듯 웃음을 머금은 이용객들도 눈에 띄었다.

높이 2.3m, 길이 10m 크기의 나무 책꽂이 열면에는 한국어·베트남·힌두어 등 각국의 언어로 적힌 A4용지 크기의 도서 분류 코드가 부착돼 있었다.

다문화 거점 시설인 이곳에서는 다양한 언어·문화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곳곳에 "중국어 언어교육 프로그램 무료 강좌", "사물놀이 무료 공연" 등이 적힌 문구가 부착돼 있었다.

라틴어·중국어·한국어·영어로 표시된 다양한 국적의 언어는 도서관 입구에서부터 보였다. 도서 대출 및 반환 창구에는 흑인 등 7명이 서 있었다. 한 남성이 도서 대출 신청서를 사서에게 건네자, 사서는 "책이 도착하면 연락해 주겠다"고 답했다. 책꽂이에 자신이 찾는 도서가 없자 도서 신청을 하기 위해 선 줄이다.

이 도서관에서는 이용객들이 사서에게 도서 신청을 하면 해당 책을 구매해 대출해주고 있다. 이날 현재 도서관이 소장중인 영어권 외 장서는 모

두 17만권. 종류도 역사·문화·사회과학·철학·경제·언어·소설·수필·시·미술·음악·인류학 등 다양하다.

한국어·일본어·베트남어·힌두어·러시아어·페르시아어 등 26개국의 신간소설과 수필, 종교, 역사 서적은 물론, 역사와 문화를 담은 DVD·비디오 등 시청각 자료도 다량 비치돼 있다. 2층과 3층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과 성인들을 위한 토론방도 마련돼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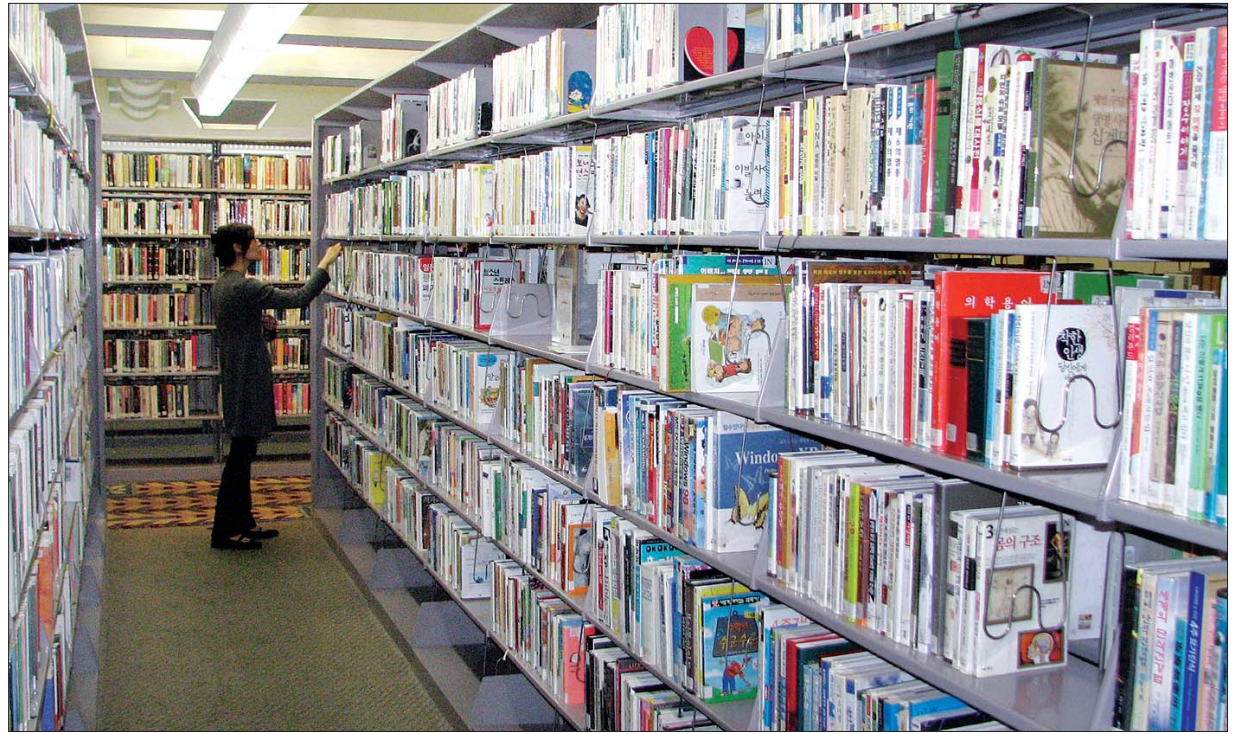
베트남인 응웬티 타이 화(여·38)씨는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도서관을 오는데, 다른 도서관과 달리 거의 모든 베트남 서적을 찾아 읽을 수 있다"며 "고향 생각이 나면 이곳에 찾아와 인기 드라마 DVD를 빌려 간다. 이곳은 고국에 대한 갈증을 시원히 풀어주는 곳"이라고 말했다.

LA도서관은 이민자들에게 자신의 뿌리를 찾는 공간이자 모국어를 혼자 배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기초적인 각국의 언어 학습서를 비롯해 문학작품까지 두루 갖춘 때문이다. 1일 평균 이용객이 무려 4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사랑받는 공간이다.

한국계인 주디 리(여·28·Judy Lee)씨는 "어릴 적 가족 모두 미국으로 이민왔는데, 한국어를 잘 못했다. 이곳에 비치된 사전과 오디오·언어 교육용 DVD로 한국어를 배웠다"며 "한 때 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정체성 혼란을 겪은 적이 있는데 모국어를 배우면서 고민이 사라졌다"고 미소를 지었다.

LA 공공도서관 관계자는 "이 곳은 이민 1세대는 물론, 2세대들이 겪는 언어와 문화적인 이질감을 없애주고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민자 등을 미국인으로 동화시키기보다는 이들이 가진 다양한 문화를 미국의 자산으로 끌어안기 위한 공간이 LA도서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LA공공도서관은 전관이 무료로 운영되며, 미국의 '중앙도서관(Central Library)'으로도 불리며, 지난 1872년 설립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시 다운타운 내 LA 공공 도서관 1층 국제언어실에서 한 한인 여성이 신간 소설을 보고 있다. 다민종의 문화·역사를 한데 볼 수 있는 이 공공도서관에는 다양한 민족의 언어로 된 서적·영상·잡지·기타 출판물 등 200만권이 비치돼 있다.

“선진 다문화 정책 바탕은 인간존중 정신”

조셉 조 캘리포니아주 세리토스시장

지난달 24일 오후 12시30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리토스시(Cerritos), 취재진은 이날 세리토스시의회 2층 의원 사무실을 찾았다. 세리토스시에서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문제와 다문화 정책에 대한 주춧돌 역할을 하는 조셉 조(Joseph Cho·한국명 조재길·67)시장을 만났다.

충북 단양 출신은 조 시장은 1974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 LA카운티 전산국에 취직해 공무원이 됐다. 이후 1977년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 백만장자가 된 그는 정치권에 뛰어들어 두 여우거절 끝에 시의원에 당선됐다. 그도 여느 유색인종처럼 미국 사회에서 동양인으로서 차별과 편견에 시달리는 등 비주류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편견에 시달렸다.

조 시장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사회는 인종과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무엇보다 인간존중이 바탕이 되는 다문화 정책이 중요하다"라며 "정부·시민단체·국민의식이 서로 연계돼 잘 맞물려갈 때 선진 다문화 정책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캘리포니아주의 다문화 정책 현주소에 대해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다. '다문화 공생'이라는 화두로 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여러 정책을 펴고 있으나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세리토스시에는 5만3000명의 주민이 사는데, 백인을 비롯한 한인 20%, 중국계 15%, 필리핀계 10% 등이 사는 '세계의 축소판'이다.

조 시장은 "일부에서는 여전히 언어·문화의 차이 등으로



이주민들을 이방인으로 여기고 있지만, 연방정부나 주정부, 시민단체에서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교육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LA시 공공도서관이 대표적인 곳이다. LA시 공공도서관은 이민 1세대는 물론, 2세대들이 겪는 언어와 문화적인 이질감을 없애주고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다문화 공존공생의 성공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조 시장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우월주의를 꼽았다. 또 인기 영합주의식 일회성 정책도 피해야 할 것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다문화 지원정책은 정부와 시민단체·시민들이 한데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조 시장은 "선진국의 다문화 정책을 무조건 따라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다문화 정책은 다민족·다인종의 특성에 맞게 짜여진 것이다. 히스패닉과 아시아인의 문화와 언어는 물론 이주 목적이 같을 수 없다"며 "한국도 이를 고려해서 다문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다문화 정책의 출발점은 외국인도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미국 다운타운 내 도서관에서 열린 '소설가와 독자의 만남' 행사에 참여한 아이와 부모들이 부대 행사로 열린 콘서트를 관람하고 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금을 지원받아 작성됐습니다.



깨끗한 자연 천년의 승결
자연과 인간이 함께 숨 쉬는 곳
화순으로 오세요!

농협 화순군지부	지부장	류철환
화순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송태평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병원장	송은규
화순새마을금고	이사장	안찬순
고려병원	병원장	이정희
중앙병원	병원장	이정희
성심병원	병원장	마명수
화순현대요양병원	이사장	김재택

JCI인증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암치료 수도권 대형병원과 어깨 나란히
암정복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이루어 가겠습니다.

www.cnuhh.com

대표전화 : 061-379-7114/8114
전화예약 : 061-379-7000/8000

화순전남대학교병원
CHOSUN NATIONAL UNIVERSITY PHOSUN HOSPITAL